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논술고사

자연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의예과-1번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태아 또는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고 말할 때, 흔히 간과되는 중요한 논점이 아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비교하는 경우이다. 임신부가 약물을 복용하여 태아가 피해를 입는 경우나 한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에 따라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태아 또는 아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생식보조술을 어떤 부부에게 시술할 것인지 결정하는 경우나 임신을 지연하여 다른 때에 아이를 갖는 경우, 비교되는 것은 하나의 태아 또는 아이가 어떤 부모를 만날 때 더 또는 덜 행복해지는가 또는 언제 태어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비교되는 대상, 즉 행복한 삶을 누릴 주체가 동일하지 않다.

제시문 (가)는 이처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어떤 아이의 삶이 가장 행복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존재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이 경우 '최선의 이익'의 주체는 특정한 아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일 수밖에 없다고 논증한다. 여러 부부들 중에서 특정 부부에게 생식보조술을 시술하기로 결정하거나 여성의 임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결정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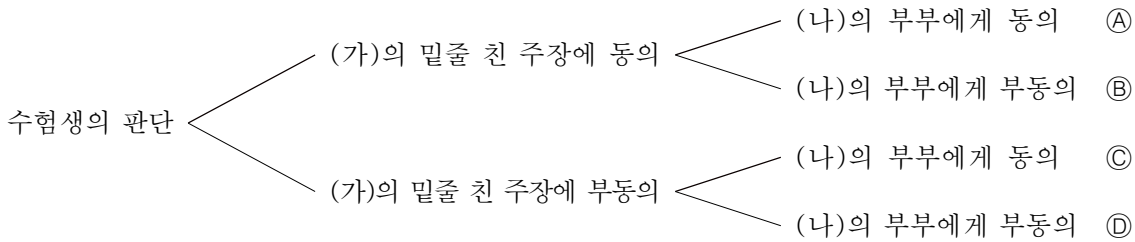
중요한 점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특정한 존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신 시기를 늦춤으로써 늦은 시기에 태어나게 된 아이는 자신이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살게 되었을 삶과 지금 태어나서 살게 되는 삶을 비교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어머니가 일찍 임신하기로 결정하였더라면 태어났을 아이는 다른 아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성이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부부가 또는 여성이 어느 시기에 임신을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며, 이런 경우에 태어나게 될 아이가 장애를 갖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부부 또는 그 여성의 그러한 결정은 자율적 선택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글쓴이는 주장한다.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공리적 계산에 의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개인의 선택은 태어날 아이의 행복을 거론하거나 사회 전체의 행복의 정도를 거론하는 것으로 무시할 수 없다. 의료 서비스의 제공자인 의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의사는 환자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제시문 (가)에서 글쓴이가 펴는 논증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는 (가)에서 전개된 논증을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논증의 검토 결과 수험생은 (1) 비동일성 문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과 동일성이 변동되는 (비동일성) 상황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또 수험생은 (2) 비동일성 상황에서 '최선의 이익'을 귀속시킬 하나의 아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행복의 비교란 사회 전체의 복지 비교가 된다는 점, 즉 선택이 개인의 행복권에 대한 고려에 기반할 수 없고 공리주의적 고려에만 기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3) 자율적 선택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이 공리주의적 계산에 우선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이해하고 동의/부동의를 결정해야 한다. 시험 상황에서 이 점을 명시적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점에 주목하는 정도로도 충분한 이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험생은 (4) 비동일성 문제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의 선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동의/부동의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이 결정을 (1)~(3)에서 언급한 논증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제시해야 한다.

답변의 두 번째 부분은 (나) 상황에서 의사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그 판단을 정당화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수험생은 (5) 이 상황이 비동일성 문제 상황임을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6) 배아 F와 배아 G의 선택이 F나 G의 최선의 이익의 고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선택은 공리주의적으로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수험생의 답변은 이 상황에서 (가)의 주장에 동의하였는지 부동의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7) (가)의 주장에 동의하였을 경우, 수험생은 의사가 이 부부의 바람에 동의하여 G를 착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가)에 대한 (5)와 (6)에 대한 이해에 더하여 (3)에 대한 동의/부동의를 관련된다. (8) (가)의 주장에 부동의하였을 경우, 수험생은 (5)와 (6)에 더하여 (3)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생식보조의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란 것이 한 사람의 인명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모라 해도 태어날 자식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수험생이 짧은 시간에 생각해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가 갖는 채점시 유의할 점은 수험생이 (가)의 밑줄 친 주장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밝히고 (나)의 상황에서 의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일관된가 하는 점이다. 질문의 두 부분에 대하여 수험생이 취할 수 있는 답변은 다음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 (가) 글의 설득력을 생각할 때, (가)를 이해하고 그 논리적 귀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채택하게 되는 경우. 그러나 (나)의 부부에 동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도덕적 직관과 충돌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찰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쉬우나 평소의 도덕적 직관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 이 유형을 택하는 수험생의 경우, 위에서 열거한 (1)~(8)의 사항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논증 구성의 설득력에 따라 평가가 가려질 것.

Ⓑ: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경우, 많은 수험생이 이 유형의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답변 노선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가)에 동의한다면 의사가 환자의 선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나)에서 환자는 듣지 못하는 아이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부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 경우에는 ‘무시한다’거나 ‘놓고 싶어 한다’는 표현을 의도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 말고는 일관성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을 취하는 답안의 경우 ‘글의 전개 및 구성’에서 큰 감점(10~20점)을 면할 수 없다.

Ⓒ: 두 가지 선택에서 모두 어려운 편을 택한 경우에 해당됨. 어려운 선택이기는 하지만 답변을 일관되게 전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의 논증을 이해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반론을 펴고 있어야 하므로, 수험생으로서의 앞의 경우보다 글을 전개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컨대 공리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면 비동일성 상황에서건 사회 전체의 행복의 극대화가 궁극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또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그 선택에 의해 누가 존재하는지 결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둘 수 없다는 논변도 매우 훌륭한 대응일 것.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부모라 해도 아이의 특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가)에 대해 부동의 하겠지만, (나)의 상황에서 의사는 부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답할 있다.

Ⓓ: (가)의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의 부부의 바람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 역시 일관된 답변이 가능한 입장이다. 이 경우에도 (가)의 논증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론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나)의 경우에는 부부의 바람에 동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듣지 못하는 데 대한 부부의 견해에 공감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비장애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 관점에서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길을 선택하면서 이해가 충실하고 논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춘 답안은 매우 우수한 답으로 평가될 것이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가)에 대해 부동의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 원칙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는 상황과 같은 인간 존재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다소 어려운 논변을 펼쳐야 하는데, 시험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논변을 무난하게 전개해 나가기란 쉽지 않아 보이며, 이런 점에서 (가)에 부동의 하는 답변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답변일 것.

한편, 배아가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윤리적 지위를 누린다고 생각하면 (나)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경우, (나)의 부부와 의사는 어떤 하나의 배아를 선택하든 도덕적 잘못을 범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기반하여 답변하려는 시도는 문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이 문제의 단서는 변순용 외 저 «생활과 윤리»(천재교과서 49-50쪽)의 “생식보조술의 도입과 윤리적 쟁점”에서 얻었으며, 생식보조술의 윤리적 쟁점에 비동일성 문제에 대한 데렉 파핏(Derek Parfit)의 고찰을 더하여 구성한 것으로 토니 호프(Tony Hope)의 «의료 윤

리» 4장에서 제시된 설명과 예제들을 각색하고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비동일성 문제와 관련된 윤리학의 개념으로 제시문의 이해에 중요한 ‘공리주의’와 ‘공리주의적 계산’의 개념은 정창우 외 저 «윤리와 사상»(미래엔, pp.147-150)과 변순용 외 저 «윤리와 사상»(천재교과서, pp.141-144)의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변순용 외 지음,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2020) pp. 49-50

정창우 외 지음,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20) pp. 48-49

변순용 외 지음,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20) pp.141-144

정창우 외 지음,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20) pp.147-150

Derek Parfit, *Reasons and Persons*. (Oxford, 1984) ch.16 “Non-Identity Problem” pp. 351-380

Tony Hope, *Medical Ethic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2004) pp. 42-57 (김준혁 옮김, 《의료윤리》 (교유서가, 2020) pp. 79-92)

2. 분석적 평가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문장 및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구사 및 표현들의 사용은 적절한가 ● 문장은 어법에 맞고 의미상 정확한가 	감점 사항 참조
글의 전개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흐름 및 논리 전개는 자연스러운가 ● 글 전체는 한 편의 정합적이고 통일된 의미를 이루는가 	감점 사항 참조
제재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일성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 비동일성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이 특정 개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사회 전체의 복지의 최대화라는 공리주의적 판단임을 이해하는가 ● 자율적 선택권과 공리 계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선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 있는가 ● 비동일성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의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글쓴이의 논지를 이해하였는가 	50%
근거의 합당성 및 논증의 설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글쓴이의 논지에 대한 동의/부동의가 글쓴이의 논변에 대한 충실한 검토에 기반하고 있는가? ● (가)의 논지에 대한 동의/부동의의 입장이 (나) 상황에서 의사의 행위에 대한 판단과 그 정당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가 ● 판단에 대한 뒷받침이 (가)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가 ● 자신의 판단 및 그에 대한 뒷받침 논증이 설득력 있는가 	5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평가요소: ㉠: [제재 이해하기 1] 비동일성 문제 상황 및 그 상황에서 도덕 판단의 특징을 이해하였다. ㉡: [제재 이해하기 2] 자율성과 공리주의 간의 우선성 및 비동일성 상황에서 환자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였다. ㉢: [첫째 물음에 대하여: 결정의 합당성] 동의/부동의의 결정이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 [둘째 물음에 대하여: 논증의 설득력] 제시된 근거들이 판단을 잘 뒷받침하여 논증이 설득력 있다.				
종합점수	<A> 상-중-하 100-95-90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내용	㉠~㉣ 모든 항목을 우수하게 충족한 경우	㉠~㉣ 중 3 항목을 우수하게 충족하지만, 한 항목에서 미흡한 경우	㉠~㉣ 중 2 항목을 우수하게 충족하지만, 두 항목에서 미흡한 경우	㉠~㉣ 중 3 이상의 항목에서 미흡한 경우

4. 감점 사항

4-1. 내용 상의 감점: 어법 및 글의 구성

문장 및 표현	- 단어의 구사 및 표현들의 사용은 적절한가 - 문장은 어법에 맞고 의미상 정확한가	빈도와 정도에 따라 1~10점 감점
구성과 전개	- 글의 흐름 및 논리 전개는 자연스러운가 - 글 전체는 한 편의 정합적이고 통일된 의미를 이루는가	정도에 따라 1~20점 감점

4-2. 형식상의 감점: 분량 및 어문 규범

분량	750자 초과	650자~750자	550자~650자	500자~550자	450자~500자	400자~450자	400자 미만
	4점 감점	2점 감점	감점 없음	2점 감점	4점 감점	6점 감점	8점 감점
원고지 사용법 및 어문 규정	상(0~1개 틀림)		중(2~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2점 감점		3~5점 감점		

5. 유의사항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만 반영함.
- 제시문의 주요 표현들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여러 문장들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감점 대상임.
- 제시문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제시문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감점하지 않음.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논술고사

자연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의예과-2번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자연계열 의예과 [문제 2]는 아래 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1은 로그함수의 성질,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주어진 다항식의 이계도함수 값을 계산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항 2는 최대·최소 정리, 정적분의 성질, 극한의 대소 관계 및 부분적분법을 활용하여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항 3은 포물선의 정의를 알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수를 잘 구할 수 있는지, 도함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한 뒤 문제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2. 종합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1	30	로그함수와 미분법을 활용하여 $p''(0)$ 를 $p(0)$, $p'(0)$ 과 적절히 연관지었는가?	10
		$p''(0)$ 를 n 에 대한 다항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내었는가?	20
2	30	부분적분법을 적용하여 c_n 을 적절히 나타내었는가?	20
		극한값 $\lim_{n \rightarrow \infty} c_n$ 을 적절히 구했는가?	10
3	40	원 C 의 방정식에 $x = \frac{y^2}{4}$ 를 대입하여 y 에 대한 다항식을 구했는가?	10
		도함수를 활용하여 위 다항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잘 파악하였는가?	15
		양수 k_0 의 값을 적절히 구했는가?	15

3. 출제 근거

문항 1: 고등학교 수학 I (천재교육 이준열 외 9인) - 수열 - 수열의 합 -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고등학교 미적분 (미래엔 황선욱 외 8인) - 미분법 -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고등학교 미적분 (미래엔 황선욱 외 8인) - 미분법 - 여러 가지 미분법 - 합성함수의 미분법

문항 2: 고등학교 수학II (좋은책 신사고 고성은 외 6인) -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연속 - 연속함수의 성질

고등학교 미적분 (천재교과서 류희찬 외 9인) - 수열의 극한 - 극한값의 계산

고등학교 미적분 (천재교과서 류희찬 외 9인) - 여러 가지 적분법 - 부분적분법

문항 3: 고등학교 기하 (비상 김원경 외 14인) - 이차곡선 - 이차곡선 - 포물선

고등학교 미적분 (좋은책 신사고 고성은 외 5인) - 미분법 - 도함수의 활용 - 함수의 그래프